

다양한 세계 최고 기록을 한눈에!

신기록 담은 기네스북 2020 출간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경남 진주, 강원 화천 등이 세계 신기록들을 모으는 2020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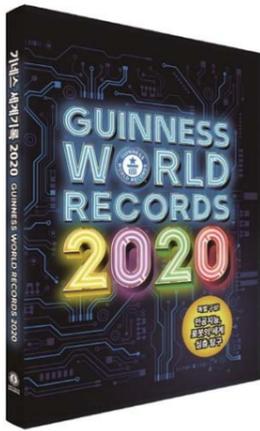
천문지리, 자연, 역사, 과학, 인문, 스포츠, 예술 등의 분야에서 나온 세계 최고 기록을 망라하는 기네스북의 2020년판이 오늘 출간된다.

한국 기록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의 기록이 눈에 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내놓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로 기네스북 2020에 올랐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12일 발매한 '맵 오브 소울 : 퍼소나'(Map of soul : Persona)의 타이틀 곡이다. 미국의 팝 가수 할시(Halsey)도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발매일인 12일부터 다음날 13일까지 24시간 동안 유튜브 7460만뷰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걸그룹 블랙핑크가 같은달 4~5일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5670만뷰 신기록을 일주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 신기록 외에도 트위터 평균 리트윗 42만2228회로 최다 인게이저먼트 남성 그룹 부문 1위에 기록됐다.

방탄소년단은 이에 앞서 트위터 최다 인게이저먼트(15만211회)로 2018년 기네스북에 기록된 바 있으며 2017년 9월18~19일 발매한



'러브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 앨범 타이틀 곡 'DNA'의 뮤비는 24시간 동안 2100만뷰를 기록해 2019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3일 조사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매로 13억4891만3000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기준 애플의 아이폰은 9억3703만 6100대가 판매됐고 3위인 화웨이의 총 판매량보다는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 진주는 가장 작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지난해 11월15일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평균 길이 10.33mm에 폭 4.15mm인 두 발가락 형상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참새만한 공룡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 진주 인근이다.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해당 흔적이 성체 혹은 청년기 공룡의 자국이라고 밝혔다. 이 공룡은 '드로마에오사우리포 르미페스 리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 1억4500만년 전부터 6600만년 전 사이 백악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근법을 이용한 눈속임으로 평면을 바라보며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트리아트 강원 화천은 세계 최대 규모 트리아트가 있는 곳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9월 28일 화천 소재 평화의담에 그려진 4775.7㎡ 크기의 '터널'이 공개됐다. 테니스 코트 18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한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의뢰로 제작된 것으로 '통일로 나가는 문'이라는 제목의 입체 벽화다. 남북 간 화합을 희망하며 제작됐다. 그림 속 댐의 반대편에는 북한의 모습이 묘사돼 있기도 하다.

한편 기네스북은 1954년 기네스 양조회사 사장인 휴 비버경이 동행자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가장 빠른 사냥용 새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쟁을 벌인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영국에서 기록으로 유명했던 맥하더 쌍둥이 형제의 기록을 토대로 1955년 발간한 것이 최초의 기네스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올해 최고 공익광고는 문체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 올해 최고 공익광고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이 제작한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 공익·공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은 지난 4월 장애인주간에 있었던 문화가 있는 날(4월 24일)에 롯데시네마 청량리점에서 일반 시민 70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4D 영화관에 입장해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극장

불이 꺼진 뒤 시각장애인이 비오는 날 거리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4차원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회반영적 표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에는 11개 부문에 3000여점의 광고물이 출품됐다. 그중 공익·공공 부문에서는 기업과 자선단체 등의 광고물 190점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으며 대상을 받은 문체부 외에 금상은 세탁공대, 은상은 세이브더칠드런, 동상은 현

대자동차가 각각 수상했다.

또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이 운영하는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은 제12회 대한민국 소비자워즈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브랜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내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김진곤 문체부 대변인은 "지난해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 이후 한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디지털 소통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뉴미디어)를 통해 독창적인 디지털 정책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익산시, 15일 영화 '얼굴없는 보스' 시사회 개최

익산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개봉작 '얼굴없는 보스' 시사회를 롯데시네마 익산모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지난해 익산교도소세탁장에서 영화 촬영에 협조한 시민과 관련 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사회에는 송창용 감독과 이상민 프로듀서가 참여해 영화 제작 기획 의도에 대해 설명한 이후 영화를 관람한다.

송 감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건달 세계를 다룬 작품으로 건달들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

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 1천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교도소세탁장은 '슈츠' 등 각 방송국 대표 드라마뿐만 아니라 1,000만 관객을 배출한 7번방의 선물 등 300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었으며, 최근 소범정, 체험용 호송버스 운영과 유치장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50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역 장·노년층을 위해 '2019 인생 나눔 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 번쯤 꿈꾸던 또 다른 미래

전북문화재단, '인생 나눔학교' 수강생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50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역 장·노년층을 위해 '2019 인생 나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인생 나눔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에 한 번쯤 꿈꾸던 다양한 직업군(패션디자이너, 여행 감독, 펍퍼, 아나운서 등)의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며, 삶에 대한 성찰과 인생 가치를 들여다보며 인생 후반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접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호남권에 거주하는 50세(1969년) 이상은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여섯 사람, 여섯 권의 책으로 배우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12월 4일

까지 매주 화·수요일에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VOGUE, 마리끌레르 등 매거진 패션디자이너 조명수 대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1호 고재열 여행 감독, 노은실 아나운서, 우타우 래퍼, 한국자전거나라 이용규 대표, 장재영 문화기획자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life_boxam@harmall.net) 전송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 전화(063-230-7445, 7446)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공유, 공감, 공생의 인문적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과 타인과의 소통,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개인의 문화적 기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인문 사업"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뉴시스

익산 왕도역사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

왕도역사관은 제1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을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왕도역사관 전시실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작품은 지난 10월 9일에 실시한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4명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감성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40점을 선보인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이하

는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 눈높이로 바라본 문화재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표현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가 어린이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를 비롯하여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